

부모간 갈등 및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Paternal /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민 하 영**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paternal/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e subjects were 227 6th grade school-age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ho were 128(56.4%) boys and 99(43.6%) girls. Instruments used in this research were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and psychological suppor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no difference in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p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 (2)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was more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an p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 (3)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operated as a main effect with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increasing as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increased. There were not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s conflict and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on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at result showed that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did not moderate negative effects of parent's conflict on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주요어(Key Words) : 부모간 갈등(parent's conflict),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논문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주 저 자 : 민 하 영(E-mail : hymin@cu.ac.kr)

I. 문제제기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부부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안녕감을 저해하는 대표적 위해 환경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옥·이정덕, 1997; 김애경, 2003; 김정란, 2005;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3).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간 갈등 상황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발달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Cobb, 1976)는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주효과(main effect)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통해 약화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Cohen & Horberman, 1983)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중 '의미있는 사회적 대상(significant others)'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의 심리적 지지는 환경으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하여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갈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응 결과를 줄이거나 완충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사회적 대상자로 조모나 외조모를 고려할 수 있다. 조부모는 아동의 심리적 친밀감과 유대감(Creasey & Kaliher, 1994)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의 제공자(배진희, 2007)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 조모나 외조모를 고려하는 시각은 상당히 쇠퇴되어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내 가족 형태가 구조적으로 핵가족이나 기능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영향을 간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존재하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가운데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첫째, 조모는 친족 유지자(kin-keeper)로써 조부에 비해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조모는 여성으로써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회화 되면서 친족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Michalski & Shackelford, 2005). 친족 유지자로서의 역할은 핵가족의 구조 안에서 조차 손자녀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중

요한 타인'으로 역할하는 토대가 되었다.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친족 유지자'로 조모는 아동과 심리적으로 밀접히 연결(Creasey & Koblewski, 1991; Finch, 1989; Jendreck, 1993)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 또한 조부모보다 조모에게 더욱 큰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Creasey & Koblewski, 1991; King & Elder, 1995; Taylor et al., 20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유의한 설명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매개하는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인 외조모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은 외조모에게 가장 강한 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박경란, 1994; Crosnoe & Elder, 2002; Kennedy, 1992; King & Elder, 1995; Whitbeck et al., 199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의 사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외조모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고려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간 갈등에서 경험하기 쉬운 아동의 긴장과 불안 등을 완화하는데 물질적 지지보다 정서적 또는 심리적 지지가 더 영향력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물질적 지지의 도구적 역할자로 평가되는 조부 또는 외조부모보다 표현적 역할자로서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지지감의 제공자인 조모/외조모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더 영향력 있는 존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모나 외조모는 전통적으로 손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없으나, 제 2양육자, 대리 부모로 고려되어지는 등 아동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어 왔다. 취업모나 미혼부·모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부모 부재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 부모로서 조모나 외조모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면서 대리 부모로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 부재를 대리하는 대리 부모로서, 전적인 양육 책임을 가진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에 초점(배진희 2007; 최해경 2002; Bullock 2005; Jendrek 1993; Smith et al., 2000; Smith et al., 2002)을 두고 있을 뿐, 3세대 조부모의 위치에서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이 손자녀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는 연구(민하영, 2004; 민하영·유안진, 1996; 장희경·조병은, 1995)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과 연계된 아동의 부적응적 발달을 줄이거나 조절하는데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면서,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으로 유발되기 쉬운 아동의 우울감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아동의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규명에 앞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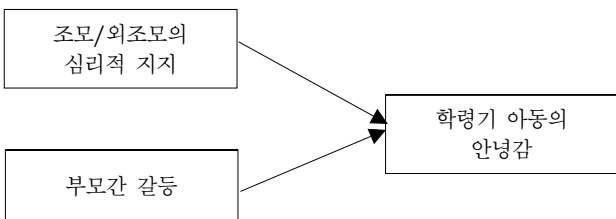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긍정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eligman, 2002). 개인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반영(Ryff, 1989)하는 안녕감 역시 긍정심리학에서 강조되는 긍정적 특성의 지표(Park, 2004)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 심리 특성인 안녕감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가 ‘중요한 타인’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긍정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할 때,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나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돕는 평가적 지지(House, 1981)는 심리, 정서적 건강성과 안녕을 지원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에 의해 부모의 애정이나 수용, 관심이 부족하기 쉬운 아동에게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제공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특성을 조부모와의 관계 특성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지지할만한 선행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모나 외조모의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함의하고 있는 심리적 지지를 토대로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에 주효과를 미치는지 또는 완충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효과(직접효과)나 완충효과(조절효과)를 통해 조모나 외조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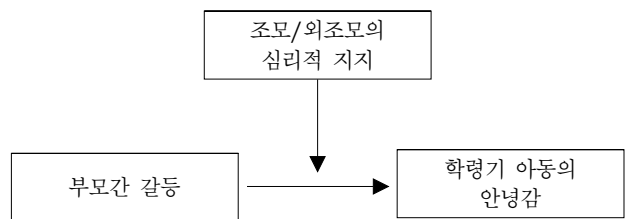
심리적 지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주효과나 완충효과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적응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과 독립적으로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림 1> 참조).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 부적응 결과를 낮춘다고 보는 입장이다(Jackson & Warren, 2000). 이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를 낮출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그림 2> 참조). 사회적 지지 효과에 관한 주효과나 완충효과 시각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조모나 외조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아동의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의 관계에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주효과를 갖는가? 완충효과를 갖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써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



<그림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완충효과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학령기 아동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 부모간 갈등을 보고할 수 있는 양친부모의 아동이면서 조모와 외조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 차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227명으로 남자는 128명(56.4%), 여자는 99명(43.6%)이었으며, 조모와 외조모 모두 생존해 있는 아동은 178명(78.4%)이며, 조모 생존, 외조모 사망인 경우가 10명(4.4%), 조모 사망, 외조모 생존인 경우가 39명(17.2%)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71.5세였으며 외조모의 평균 연령은 68.3세로 나타났다. 조모 중 65세 이하는 43명(18.9%), 70세 이하는 64명(28.2%), 75세 이하는 43명(18.9%), 76세 이상은 73명(33.9%)이었다. 외조모 중 65세 이하는 79명(34.8%), 70세 이하는 70명(30.8%), 75세 이하는 41명(18.1%)이었으며 76세 이상은 37명(16.3%)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1(9.3%)명이었으며 비동거의 경우 192명(84.6%)으로 나타났다(결측 14명). 외조모와 동거하는 경우 8명(3.5%), 비동거의 경우 217명(95.6%)이었다(결측 2명).

2. 조사도구

1)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척도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이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련된 것(Diener, 1994)으로,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적응 결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녕감은 복잡한 다차원적 요인으로 평가(신주연 등, 2005)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인 우울 등으로 측정(배진희, 2007; 이승훈·현명훈, 2004; Goodman & Silverstein, 2002)되는 경향이 많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Kovacs(1981)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 정서, 행동장애, 자기비하 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표시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위는 0~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녕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6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는 .7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8.06(3.84)으로

나타났다.

2) 부모간 갈등 척도

Grych 등(1992)의 아동용 부부갈등 지각 척도(CPIC: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과정을 통해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해 보고된 부부갈등보다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보다 잘 예측한다는 점(Grych & Fincham, 1990)을 고려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티격태격하거나 다투신다',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와 불평을 서로서에게 자주 하신다' 등 부모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방안, 부모 갈등으로 인한 자기 위협 요인의 20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는 각각 2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간 갈등의 평균은 29.55(6.80)로 나타났다.

3)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척도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원(1989)과 성영혜(1993)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조하여 '어느 손자나 손녀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할머니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정서적 지지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신다', '조그만 일이라도 잘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신다' 등의 평가적 지지를 중심으로 심리적 지지 척도를 구성하였다. 8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86 .88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는 각각 8~40점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외조모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모의 심리적 지지 평균은 28.32(6.18)이며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평균은 29.38(6.25)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2006년 3월 대구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3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응답이 끝난 후 수거했으며,

수거한 질문지 중 부모와 모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와 조모 또는 외조모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조모나 외조모와 만남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질문지 조사 자료 중 227명의 자료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프로그램의 쌍체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표준적 중회귀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문제 1>은 쌍체 t 검증으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문제 2>는 표준적 중회귀분석,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효과를 주효과 및 완충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문제 3>은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모와 외조모와 심리적 지지를 한쌍으로 하여 쌍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쌍체 t 검증을 위해 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학령기 아동에 한해 자료 분석한 결과, <표 1>에 나타나듯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79, p > .05$, Table 1).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표준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 나타나듯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설명력($\beta = -.16, p < .05$)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beta = -.21, p < .01$)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와 같이 변인

<표 1>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

변 인	Mean(SD)	쌍체 t 값	p-value
조모의 심리적 지지	28.15(6.14)	-1.79	.08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29.09(6.06)		

<표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 ²	F(df)
	B	β		
상 수	8.05		.09	7.69*** (2,161)
조모의 심리적 지지	-.10	-.16*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14	-.21**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은 우울감으로 측정

<표 3>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 상관관계

변 인	조 모			외조모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1			1		
부모간 갈등	.282***	1		.282	1	
조모의 심리적 지지	-.220**	-.163*	1	-.202**	-.17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단 계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 ²	△R ²	F(df)
			B	β			
주효과	1 단계	상 수	2.99		.09	.03	16.81*** (1,172)
		부모간 갈등	.17	.30***			
	2 단계	상 수	8.13				
		부모간 갈등	.16	.27***			
상호작용효과	3 단계	조모의 심리적 지지	-.10	-.17*	.13	.01	8.18*** (3,170)
		상 수	8.21				
	부모간 갈등(A)	.16	.28***				
	조모의 심리적 지지(B)	-.10	-.17*				
		A×B	.01	.11			

*p<.05, **p<.01, ***p<.001

<표 5>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단 계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 ²	△R ²	F(df)
			B	β			
주효과	1 단계	상 수	3.07		.08	.01	18.22*** (1,203)
		부모간 갈등	.17	.29**			
	2 단계	상 수	8.13				
		부모간 갈등	.15	.26***			
상호작용효과	3 단계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08	-.14*	.09	.001	7.81*** (3,201)
		상 수	8.12				
	부모간 갈등(A)	.15	.26***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B)	-.08	-.14*				
		A×B	.01	.06			

*p<.05, **p<.01, ***p<.001

들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고종욱, 염영희, 2003; Jackson & Warren, 2000)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직접효과) 및 완충효과(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모간 갈등의 변수를 먼저 회귀시킨 후,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를 회귀시켰을 때 종속변인의 변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직접 효과를 미친다 할 수 있다.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를 먼저 회귀시킨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항들을 회귀시켰을 때,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의 변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완충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충효과 검증 시 독립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문에 발생하는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주효과를 가질 뿐 상호작용을 통한 완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부모간 갈등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외조모의 경우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각각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3단계에서 부모간 갈등(A)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B)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되었으나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그 설명력은 각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일상에서 경험하기 쉬운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녕감을 저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의미있는 사회적 지지자이

며 심리적 친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모나 외조모(Furman & Buhrmester 1985)는 부모간 갈등에서 나타나기 쉬운 아동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킴으로써 안녕감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구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22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부모간 갈등 및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은 조모보다 외조모에게 보다 높은 심리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조모보다 외조모에게 보다 많은 정서적 친밀감을 지님(민하영, 2004; 민하영·유안진, 1996; 서동인, 1991; Michalski & Shackelford, 2005)에도 불구하고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친밀감이 대인관계의 질을 반영한다면, 심리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의 양을 반영(성영혜, 1993)하기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의 양에 있어서 조모나 외조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조모나 외조모 모두 친가 또는 외가라는 친족 지위와 관계없이 의미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지각되는 심리적 지지의 경우 8~40의 점수범위 중 조모는 평균 28점, 외조모는 평균 29점 정도의 심리적 지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라는 친족관계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결속감(Creasey & Kaliher, 1994)을 토대로 아동은 조모나 외조모를 의미있는 심리적 지지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감이 아동의 일상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안녕감을 유지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인 우울감에 대한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은 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외조모의 영향력이 조모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은 친조모보다 외조모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민하영, 2004; 서동인, 1991; Michalski & Shackelford, 2005)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가 조모인 시어머니보다 외조모인 친정 어머니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외조모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의미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모보다 아동의 안녕감에 보다 많은 설명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동

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조모/외조모간 심리적 친밀감과 함께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아동의 안녕감을 살펴본 후속 연구 등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외조모의 영향력이 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아동의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외조모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저하를 도모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기보다,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저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사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아닌 주효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연구문제 3>의 결과에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이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상황(1단계)에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인 추가 시 유의하게 설명력이 증가(2단계)했지만,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인 추가 시 설명력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3단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주효과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장미경, 2006)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 또는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의 상황에서 부모간 갈등을 조절하여 아동의 우울감을 완화하거나 완충시키지 못하는 것은 조모 또는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을 조절하는 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모 또는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안녕감 위협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부모간 갈등 수준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서는 안정된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을 강조한다(성영혜, 1999). 이를 고려해 볼 때 심리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안정적 대인관계를 통해 제공하는 조모나 외조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 혈연 관계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는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 차원에서 더욱 의미있게 평가해야할 사회적 지지자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특성을 토대로 아동의 발달 특성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크기, 밀도, 접촉 빈도 등을 강조하는 구조적 측면(Walker, McBride, & Vachon, 1979)보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나 관계 등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는 기능적 측면(Cohen & Hoberman, 1983)에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함으로써, 조모나 외조모와의 교류빈도, 동거 여부 및 조모/외조모-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인 동시에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타인'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효과를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 보면서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았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고종욱 · 염영희(200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대한간호학회지**, 33(2), 265-274.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3), 351-372.
- 김정란(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민하영(2004).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23-34.
- 민하영 · 유안진(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4.
-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지원(1989).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주연 · 이윤아 · 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이승훈 · 현명호(2004). 자연환경과 회복환경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609-632.
- 장미경(2006). 아동의 사회적지지 망: 사회적지지 망의 발달과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2), 27-41.
- 장희경 ·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족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한미현 ·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Bullock, K.(2005). Grandfathers and the impact of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1), 43-59.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reasey, G., & Kaliher, G.(1994). Age differences in grand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grand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17, 411-426.
- Creasey, G., & Koblewski, P. J.(1991). Adolescent grand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and paternal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Journal of Adolescence*, 14, 373-387.
- Crosnoe, R., & Elder, G. H. Jr.(2002). Life course transitions, the generational stake, and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89-1096.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Finch, J.(1989). *Family Obligations and Soci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oodman, C., & Silverstein, M.(2002).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in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he Gerontologist, 42*(5), 676-689.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 Addison-Wesley.
- Jackson, Y, & Warren, J. S.(2000). Appraisal,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Predicting outcome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1*(1), 1441-1457.
-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09-621.
- Kennedy, G. E.(1992). Quality in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5*(2), 83-98.
- King, V., & Elder, G. H. Jr.(1995). American children view their grandparents: Linked lives across three rural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165-178.
- Kovacs(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in, N., Ye, X., & Ensel, W. M.(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Michalski, R. L., & Shackelford, T. K.(2005). Grandparental investment as a function of relational uncertainty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parents. *Human Nature, 16*(3), 293-305.
- Park, H. O.(2004). Grandmothers as primary caregivers: poverty, care demands,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ligman, M. E.(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3-9).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mith, C. J., Beltran, A., & Kingson, E. R.(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Emerging program and policy issues for 21st centur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Work, 34*(1), 81-94.
- Smith, G. C., Savage-Stevens, S. E., & Fabian E. S.(2002). How caregiving grandparents view support groups for grandchildren in their care. *Family Relations, 51*, 274-281.
- Taylor, A. C., Robila, M., & Lee, H. S.(2005). Distance, contact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Grandparents and adult grandchildre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2*(1), 33-41.
- Walker, K. N., McBride, A., & Vachon, M. L.(1979).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he crisis of bereavemen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1*, 35-41.
- Whitbeck, L. B., Hoyt, D. R, & Huck, S. M.(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1025-1035.

접수일 : 2007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23일